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10화 육성재 대망의 피날레 장식! 코미디 연기까지 갓벽 ‘칠각형 아티스트’ 등극!

2025. 6. 9.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관련 이미지

독보적인 웃음으로 대한민국 토요일 밤을 폭소로 물들인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이 화려한 피날레를 맞이했다. 열 번째 호스트로 나선 육성재가 코미디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칠각형 아티스트'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무한 매력 스펙트럼은 시청자들의 웃음 버튼을 제대로 저격했고,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손색없는 활약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는 떴다 하면 '밈 스타' 자리를 예약하는 초특급 호스트와 웃음 전투력 만렙인 '믿보' 크루가 만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1위 리얼 코미디 쇼.

지난 6월 7일(토) 저녁 8시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10화에서 육성재는 크루들과 함께 오직 '웃기겠다'는 목표 하나로 무대를 장악했다. 아이돌 비주얼을 과감히 내려놓은 극강의 파격적인 변신과 거침없는 연기로, 그는 시종일관 폭소를 유발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소년미 넘치는 댄디한 스타일로 오프닝에 등장한 그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역대급

환호를 보내주신 만큼 최고의 무대로 보답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

육성재에 내재된 '개그 DNA'와 미친 코미디 센스는 'SNL 코리아'를 만나 제대로 꽃을 피웠다. "아이돌이랑 배우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육성재는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똑순이의 면모를 담아 "저는 '이랑'을 선택하겠다"라는 '잔망미' 넘치는 센스 답변을 내놔 동명의 크루 정이랑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그런가 하면 좋아하는 'SNL 코리아' 크루로 김원훈을 꼽은 그는 '100억 받고 김원훈으로 살기'와 '무일푼 육성재로 살기' 밸런스 게임엔 1초 고민도 없이 '무일푼 육성재'라고 답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에 빈정이 상해 노려보는 김원훈과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는 육성재의 아찔한 상황극 역시 '꿀잼'을 선사하며, 오프닝에서부터 웃음 대박 조짐을 예고했다.

'에겐남'(에스트로겐 남성)이라는 이유로 '테토녀'(테스토스테론 여성) 지예은에게 환승 이별을 당한 후 혹독한 '테토남' 훈련을 통해 이별 복수에 나선 육성재가 터프함을 장착해 수염과 장발로 아이돌 비주얼을 완벽하게 내려놓은 파격 변신은 뜨거운 반응을 유발했다. 반면에 기장에 처음 도전한 '아이돌 육성재'로 등장한 코너에서는 완벽한 꽃미남 비주얼로 다시 돌아오는 등 극과 극 변신을 거듭했다.

특히 기장 육성재 코너에서는 아이돌과 팬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를 연기하며 기내를 순식간에 팬미팅 분위기로 만들었으며, 안전 벨트 착용법마저도 섹시한 춤으로 소화해내는 본 투 비 아이돌의 포스부터 육성재의 싸인 티셔츠 경매 풍경까지 다채로운 판타지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싸인 티셔츠를 100만 원에 낙찰 받은 후 육성재의 향기에 취해 정신을 잃은 정이랑을 깨우기 위해 비투비의 '그리워하다'를 감미롭게 부르더니 음방 '엔딩 포즈'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육성재표 능청 연기는 극강의 웃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수지의 '연하남'으로도 등장한 육성재는 남성적인 면모와 함께 어린 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는 반전 큐티 매력으로 혼을 빼놓기도 했다. 발을 동동 굴리며 칭얼대는 연기부터 이수지와의 격렬한 스킨십까지 캐릭터에 빙의한 육성재의 프로페셔널한 활약은 베테랑 크루들도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신동엽은 "마지막 호스트로 육성재가 대미를 멋지게 장식해줘서 크루로서 고맙다. 육성재에게 반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라이브 코미디 쇼 특성상 오늘 당일과 무대에서 대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해줬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육성재의 활약 외에도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이 가오가 떨어지면 헐크로 돌변하는 '라지 사이즈' 김원훈 역으로 깜짝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화제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연애불변의 법칙'을 패러디한 '연애불변의 원칙' 등 참신한 새 코너들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하며 'SNL 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 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노래와 정극 연기에 이어 코미디 연기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한계 없는 스펙트럼을 입증한 육성재는 "웃음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크루분들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며 "시즌 7의 마지막을 장식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라며 벅찬 소감을 밝혔다.

'SNL 코리아' 시즌 7을 마무리하며 크루들의 진심 어린 소감도 이어졌다. 신동엽은 "시즌 7도 든든한 크루들과 멋진 호스트들, 그리고 늘 열렬히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코미디 코스를 경험했고, 멋지게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수지는 "전 출연진의 땀과 눈물이 진한 웃음으로 승화돼, 마지막까지 정말 짜릿하고 가슴 벅찼다"라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드러냈고, 김규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SNL 코리아'를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매 순간 감사함을 느끼며, 떨림과 설렘 그 중간의 감정에서 재밌게 놀았다"라고 시즌 7 완주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는 1화부터 10화까지 전편이 공개됐으며, 쿠팡플레이에서 시청 가능하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